

목은재(木隱齋)

MOKEUJE

박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박준영 건축사는 매우 독특한 분으로 인터뷰 후에 기억되었다. 매우 훌륭한 품질의 건축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마다 않고,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대단함을 넘어 존경스런 생각도 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표현처럼, '산수를 못해'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어디 그 만의 문제는 일까? 학교에서도 산수를 좀 알려주고, 국내 건축 환경이 계속 좋은 품질의 건축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인수(수) : 안녕하세요. 이제 이 인터뷰도 벌써 9회째입니다. 우송대 학교의 유정훈 교수님과 저는 이제 매우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 유정훈(유) : 저도 실무를 하다가 교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이 흥미 있습니다. 전 박준영 건축사님처럼, 멋있고 재미있는 건축을 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움이 있습니다.

●●● 박준영(박) : 그러시군요. 실무를 하시고 교수를 하는 분을 보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 인가요?

● 수 : 네. 최영집 회장이 취임하시면서, 새로 편찬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나 해야겠는데, 그게 무얼까 생각하게 되었고, 국내에선 건축사와 건축물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많은데 비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인터뷰는 없어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을 엮어서 인터뷰를 하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편찬위원회에서 전호 혹은 근래에 건축사지 게재작 중에 인터뷰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 : 저는 협회일은 안하고 있는데, 아니 못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 대상은 '목은재' 라는 주택이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터뷰나 건축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렵고 현학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쉽고 직접적인 느낌이 가도록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또 유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일해 오시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좀 하시고, 고쳐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 : 건축사사무소 주가인을 개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고, 그 전엔 어떻게 지내셨고, 개업하셔서 지금까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박 :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미, 삼풍 그리고 신조건축 등을 거쳐왔죠.

● 유 : 그 사무소들의 규모는 어떤 규모의 사무소이었나요? 작은 규모인가요?

● 박 : 규모들은 좀 있었던 회사들이었죠. 특히 신조건축은 오웅석 선생님이라고 협회 회장도 지내셨던 분이 운영하시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 안에 좀 작은 조직에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큰 조직에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한 8명 정도 되었죠. 한미나 삼풍도 규모가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짜여진 틀에 맞추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었습니다.

● 유 : 각 사무소 마다 얼마나 근무 하셨었는지요?

● 박 : 삼풍이나, 한미에서는 각 1, 2년 정도 있었고, 신조에서는 군 제대 후 주욱 있었으니 십여년 있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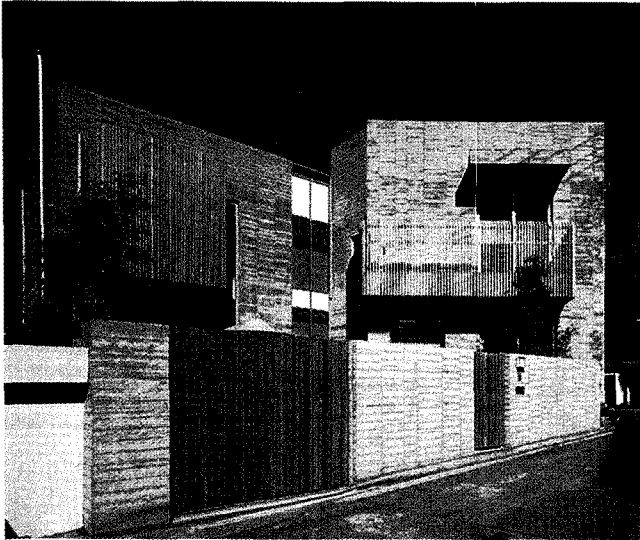
● 유 : 오래 일 하셨었네요. 개업하시기 전에는 주로 신조에서 일을 하신 거겠네요.

● 박 : 그렇습니다.

인터뷰 일자 2010년 10월 25일
장 소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회의실

참 석 자 박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유정훈 교수 / 우송대학교 건축학과

박인수 건축사 /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개화동 인화현

☞ 수 : 근무하시면서 참여하셨던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 : 뭐 딱하...한미 건축에 있을 때는 서울역사 현상설계에 참여했었고, 고속 전철 관련 해서...삼풍에서는 롯데호텔 실무팀으로 현장에서 일했고, 신조건축에서는 계획팀으로 계속 일했었습니다. 거기서 여의도 침례교회 수양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마지막 프로젝트여서 기억이 남아 있어요.

☞ 수 : 신조 건축에서 오웅석 선생님 말고 함께 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 박 : 고석생 소장님하고, 이용학 소장님이 계셨죠.

☞ 수 : 지금도 이 분들이 일하시나요?

● 박 : 지금은 안하세요. 연세가 모두 일흔이 넘으셨어요.

● 유 : 당시 일했던 것들이 지금 주가인에서 일하시는 것과 관련성이 어떻게요?

● 박 : 조금 다르죠. 하지만 제가 당시 사무소에서 트레이닝을 참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 유 : 하지만 그런 트레이닝이 지금과 같은 건축을 하게 한 것이겠네요.

● 박 : 그렇죠.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수 : 아까 말씀 중에 큰 조직은 생리에 좀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조건축은 생리에 좀 맞았다고 할 수 있나요?

● 박 : 생리에 맞았던 것은, 소장님들이 저를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몇 시에 나오던, 몇 시에 들어가던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활동하는데 자유로웠어요. 당시 소장님이 다른 직원들은 모두 9시에 나오는데, 10시까지만 나오면 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10시 이전에 출근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밤에 일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이유가 있었죠. 밤에 주로 일하니 제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해야 하는데 매를 때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죠. 소장님 앞에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저 나름엔 명분이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 수 : 혹시 신조건축 전에 삼풍이나 한미에선 그런 것으로 문제가 없었나요?

● 박 : 자주 지각하니까 지각이 꼬리표처럼 제겐 붙어 다니는 거였어요. 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유 : 혹시 개업하신 이후에 직원들 중에 박준영 건축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었나요? 혹은 그런 직원이 있다면, "너는 10시 까지 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 박 : 출퇴근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몇 시에 출근하건, 열심히 하는 데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저희 일 할 때 오는 의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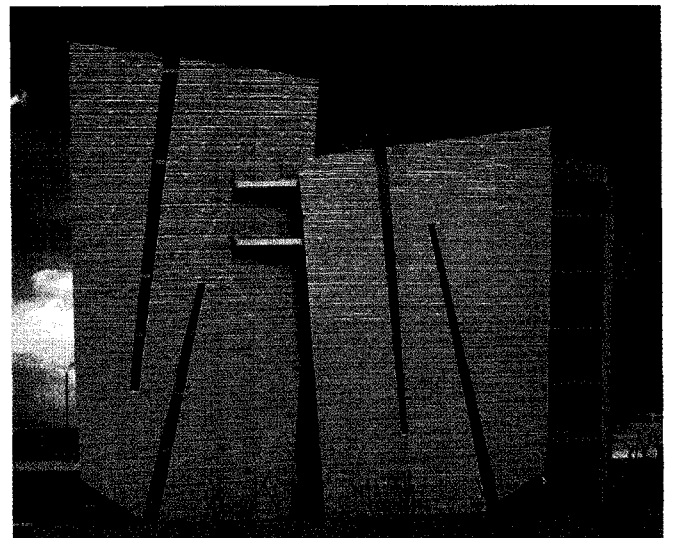
☞ 수 : 혹시 개업하기 전 사무소 근무를 통해 무언가 배웠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 박 : 지금 생각해 보면, 트레이닝은 잘 받은 것 같아요. 단 몇 일만에 계획안 완료를 하였죠. 당시 소장님들이 지적도 하나 주고, 몇 일까지 해야 하는데...하고 나가시면 제가 완전히 혼자 일을 진행하였죠. 엄청난 트레이닝이 되었어요. 사실 평면에는 입면, 단면이 모두 담겨있으니까 입체퍼즐게임 같은 것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 성에 잘 정도의 계획안을 완성하는 것이죠. 당시는 참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 시간내에 해냈어요.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스케치 한 두장으로 전체 구상을 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걸 나중에 알았지만 회사에서 제가 그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도 제겐 큰 도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유 : 건축사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것을 보면 유명한 스승 밑에서 그 생각을 배웠다는 것도 있고, 건물을 직접 만들면서 건설하게 건축을 배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박준영 건축사님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박 :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승(殊勝)한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다면 조금은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건축의 관점을 갖고 바닥부터 성실히 해왔다면, 추구하는 건축이 스승의 생각보다 각자의 생각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모셨던 소장님이 정해진 내용으로 제게 주입하려하지 않은 것이 제겐 더 큰 가능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유 : 하지만 주변이나 좋아하는 건축사들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팬텀

있을까요? 혹시 참고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 박 : 있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 건축전문지, 잡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보았죠. 물론 흥내도 내고, 지금 돌이켜 보면, 마리오 보타의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강하게 제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도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분들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유 :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 대개 유명 건축사와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박 건축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어떤 분야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수 : 그럼 신조건축에서 나와서 바로 건축사사무소 주가인을 차리신 것인가요?

● 박 : 나와서 좀 헤메다가 차리게 되었죠.

● 수 : 그래서 질문이 더 이어지는데요. 왜 나오시게 되었는지, 또 개업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유 : 건축사면하는 언제 취득하셨나요?

● 박 : 1999년에 취득했습니다. 예전 사무소는 워낙 바빠서 시험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친구가 하는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도와 주었죠. 그런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 친구일도 너무 바빠서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당시 생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그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것은 업무의 끝이 명확해서 시간을 좀 쓸 수 있더라고요. 당시 국내에 메이저 설계회사 'K'사나 'S'사 같은 곳의 일을 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개업은 했지만 운영은 쉽지 않았어요. 친구 사무소를 도왔던 것, 또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대해 조금 접했지만, 저로서는 너무 문외한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맘에들게 하면 고맙고, 또 그렇지 못하면 열 받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조직을 다루는 면에 참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유 : 하지만 지금 조직을 만드셨잖아요?

● 박 : 결국 그렇게 된 건가요?

● 수 :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신조건축에서 나와서 친구 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면허를 취득하고, 주가인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주가인을 만드시게 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 박 : 그 전에 선배사무소인 '간(間)' 건축에서 같이 일 했었어요. 지금은 단국대에 계신데, 그분이 대학강단으로 가면서, 상호를 주가인(住家人)으로 바꿔 혼자 일하게 되었죠.

● 수 : 그럼 그분하고는 얼마정도나 일을 하셨나요?

● 박 : 4~5년 정도 일했습니다.

● 수 : 지금 보면 2003~4년 정도에 주가인 상호를 만드신 거네요.

● 유 : 주가인 이름은 직접 만든 사무소 이름이네요. 주와 가는 'HOME', 'HOUSE' 그리고 사람 뭐 이런 것인가요?

● 박 : '사람 사는 집?' 이란 스스로의 질문이죠 뭐.

● 유 : 처음에도 주택이 많았나요?

● 박 : 그렇진 않았어요.

● 수 : 주가인이란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 간에서부터 계속 같은 조직으로 진행되었겠네요.

● 박 : 그렇습니다.

● 유 : 장소는 어디였나요?

● 박 : 양재동에 있다가, 방배동 카페골목에 있다가, 지금 서래마을로 옮긴지 한 6년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포동에 집이 있었고, 지금은 일산에 살다보니 여기가 제일 편리 하더라고요.

● 수 : 간 건축은 파트너십이었죠?

● 박 : 그렇기도 했지만 각자 일했습니다. 독립채산제였죠.

● 수 : 그럼 각각 팀이 있었겠는데요. 흡수하신 것인가요?

● 박 : 그렇진 않아요.

● 수 : 아무튼 그렇게 사무소를 차리게 되셨는데요. 사실 박 건축사님은 조직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것인데요. 왜 사무소를 차리게 되셨을까요? 그때는 무슨 느낌이 있었을까요?

● 박 : 사실 처음에는 생계와 관련 되서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터전이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주가인을 만들 때는 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 수 : 그 말씀은 박 건축사님이 일하시는데 근간이 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 박 : 그렇죠. 어떻게 건축을 할까? 에서 나는 왜 건축을 하는가? 를 고민하게 되면서 주가인을 만들게 됐어요.

● 수 : 예, 그것이 바로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질문해보면, 주가인이 박 건축사님의 건축 정체성에 도움이 되셨나요? 또 하나의 질문은 사실 많은 건축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미숙하거든요. 그런면에서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 박 : 조직이나, 경제적 측면에선 더 안 좋아진 것도 같습니다. 일종의 계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낼 것이냐를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공사 끝날 때까지 보완작업을 하니 직원들도 힘들죠. 주택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년사오개월은 필요한데, 주택 설계비 받아서 이렇게 일하면 참 어렵죠. 원주에 주택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초우재라고, 저는 전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덜 손해가 나느냐가 문제지 남는 경우는 없어요. 산수를 못하다보니 참 어렵습니다. 욕심 때문에 업무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됩니다.



초우재

☞ 수 : 네, 그런데 조직의 운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박 건축사님의 건축 정체성을 위해선 도움이 되었나요?

● 박 : 자기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또 경제적 이유로 나가고 하니 회사에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죠.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질 못하거든요.

● 유 : 사무소 운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사람이 있나요?

● 박 : 지금은 없습니다.

● 유 : 지금 직원은 얼마나 되시나요?

● 박 : 상주는 2명이 있고, 재택 근무하는 예전 직원이 3명이 있어요.

☞ 수 : 그러니까 박 건축사님이 모든 것을 전부 챙겨서 일하는 식이군요.

● 박 : 그렇습니다. 제가 계약부터 디자인, 도면검수, 감리, 운영 등 모든 것을 다해야 하죠.

● 유 : 도와줄 세컨 맨(second man)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

● 박 : 그렇죠, 매우 절실하죠. 제가 할 일이 많아지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 유 : 실무쪽으로 다른 분들과 파트너 섭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혼자서 하려고 하실 것 같아서요.

● 박 : 외면했던 방안이지만, 지금은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 수 :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일을 개인이 모두 해결하기 보다는 일정한 제도가 지원을 좀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 하준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보면 “사람은 네 살부터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모두 네 살부터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네 살부터 종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라고 교육해서 의사, 변호사 같은 보다 중요한 사회적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키우고 나서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건축설계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었다고 능사가 아니라, 지키고 보호할 것은 최소한의 제도가 막아주어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작품을 내놓고, 일을 열심히 의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제도나 기준에서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사 면허만 있다고 모두 그런 혜택을 받을 순 없겠지만, 일정한 제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 그렇죠, 그런 기준과 제도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수 : 또 전해들은 말씀 입니만, 야구경기가 경기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은 그 경기에 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야구경기에 룰이 없으면, 몽둥이와 단단한 돌맹이를 들고 양팀이 막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즐기고,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룰, 규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도 그런 공정한 운영이 되기 위해선 기준과 룰의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선생님은 설계만 하세요. 제가 나머지 운영, 조직, 경제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아닐까요?

☞ 수 : 그런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닐까요?

● 박 : 그런데 지금 방금 유 교수님 말씀처럼,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말이죠, 각자의 원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인데 건축사로서 자기 입장의 관점만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그래요.

☞ 수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변이라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 박 : 사무소하는 친구들 중 작게 사무소 하는 친구들은 저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고, 규모 있는 사무소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듣기만 하죠. “사업은 아무나 하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 유 :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 수 :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주가인 운영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박 : 글썄요, 의미라기 보단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목은재 같은 경우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건축주가 전적으로 신뢰해준 것은 참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고생스러웠던것을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협의가 아닌 자본논리에 타협해야 하는 일들은 결국 건축주와 공동작이 되고 말죠.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 수 : 그럼 뒤에 말씀해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혹시 그런 사례도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협이 되었거나, 말씀처럼 공동작(?)이 된 건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업하는 건물들, 분양하는 건물들이 주로 그런 건물이 아닐까 하는데요.

● 박 :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진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서 일에 대한 거부 의식이 있다 보니, 결과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유 : 주가인의 경우 직원이 제일 많았을 때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인원은 어떻게 되실까요?

● 박 : 제일 많았을 때는 18명 정도였고, 2년전 정도까지는 7~8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었죠.

- 유 : 그럼 그때는 재택근무 같은 것은 없었겠네요.
- 박 : 그렇죠.
- 유 : 18명 정도 되면, 현상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지 않았나요?
- 박 : 현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못해요. 전에 직원으로 일할 때는, 현상 설계 과정을 즐겼는데...
- 수 :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현상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순 없으실까요?
- 박 : 제가 정확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경쟁력의 부재겠지요.
- 유 : 그래도 현상 같은 것을 보면, 막 '당기는' 프로젝트들도 있지 않나요?
- 박 : 있죠. 전 주로 결과물들이 다 나오고 나서 알게 되죠. 그 결과들을 보고 '야 이런 것은 한번 해보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최근에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현상설계는 참여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유 : 박 건축사님과 이야기 해보니, 자존심이라 볼 수도 있고, 미묘한 생각이 듭니다.
- 박 : 어쩌면 그것은 나를 주장하자는 것인데, 제 주장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지도 모르죠.
- 수 : 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계신가요?
- 박 : 사람을 찾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직원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공고를 통해 뽑게 되는데, 그 방법이란 것이 사람의 성향이나 업무능력을 확인할 수 없죠. 안개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죠.
- 수 : 그래도 그간 사용하신 방법 중에 제일 효과가 있었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 : 그래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박 : 우연치 않게 괜찮았던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뭐 인터넷으로 뽑았는데 괜찮은 친구가 왔거나, 소개로 왔는데 또 괜찮은 직원이 온 경우도 있죠.
- 유 : 학교에 강의 나가시지는 않나요? 그런 걸 하면 좀 쉬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 박 :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나 지인들께 부탁을 드린 경우는 있는데, 회사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니 소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 유 : 주인인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급어는 일정부분 정해서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 박 : 그렇죠. 가능하면 원하는 수준은 유지하는데, 그런데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일년에 몇번도 있을 수 있으니 서로가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올인 해서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 수 : 제게 보여주신 작품집을 보니, 시공 품질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시공자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 :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된 시공자가, 누구라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한 예상되는 설계가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는 대부분 공사비를 깎으려 하는데, 미리 건축주에게 설계 예상가를 귀뜸하는 겁니다. 건축주에게 미리 예시를 하죠.

● 수 : 그런데 시공사라는 특징이 많으면 많은대로, 또 적으면 적은대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니, 박 건축사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박 :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결과정보와 계약내역서가 있으니 조절이 가능하죠.

● 수 : 물론 공사비도 잘 받았고, 하지만 시공사가 또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 박 : 그럴 수도 있지만, 설계자가 공사계약시 같이 참여하여 조율하는 수고를 해주었다면 쌍방의 입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업무에서도 유리하지요. 현장에서 설계자가 감독이 아닌 시공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유 :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공을 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중복되는 건설사가 있나요?

● 박 : 지역업체들이고,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 수 : 참...현장에서 많은 것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장을 잘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 유 : 거의 달인이시네요.

● 박 : 현장책임자에게 "네가 현장에선 최고다" 내게도 당신의 노하우를 좀 알려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죠. 물론 제가 알고있는 노출콘크리트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를 인정해 주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 유 : 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시공자들이 안 해 본 공법일텐데요.

● 박 :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매번 많이 배웁니다.

● 유 : 그러니 직원들에게 맡기시기가 좀 어렵겠습니.

● 박 : 일부 시키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절 뒷받침 해주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조정 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죠. 현장과 소통할 때는 단순하게 정리해서 "야, 이게 되겠구나"식의 느낌을 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복잡 하면 심지어 "돈

더줘도 안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서 이게 되겠구나란 느낌을 반드시 심어주어야 합니다.

☞ 수 : 이런 노하우는 주가인 차리면서 알게 되셨을까요? 아님 그 전에도 이미 좀 연습이 되었으셨을까요?

● 박 : 직장 근무 때는 사무소 안에서 퍼즐(계획)놀이 하느라 현장엔 거의 가지 않았어요. 사무소 오픈 하면서 현장을 나가기 시작했죠. 도면에 액체방수 2차라고 써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수없이 써왔던 기본적인 자재가 실제 어떻게 시공 되는지 궁금했어요.

● 유 : 그래서 현장의 궁금증은 다 풀리셨네요.

● 박 : 많은 부분 그렇죠. 사실 제가 공부하려고 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을 도면에 반영하기도 하면서 현장을 이해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권위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굳어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 책임자가 도면을 이해하고 있는지 직 간접으로 확인하고 나 또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시로 책임자와 상의해서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을 처리 할 수 있어요. 그들과 같이 건축을 즐겨야죠.

☞ 수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박 건축사님이 현장에서 처리하는 일이 매우 많고, 또 중요한 업무로 파악되는데요. 혹시 그런 노하우가 도면이나, 시방서등에 표현되어 시스템화가 되어있진 않으신지요?

● 박 : 그거...그것을 자료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웃음)

● 유 : 사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대단히 유용하실 텐데요.

● 박 : 현장에 석고보드 처지면, 주로 석고보드위에 그려져 있어요. 건물 뜯어 보면 있을 겁니다.

☞ 수 : 사진이라도 찍어두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 박 : 현장 실무진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시공도 쉽고, 보기도 좋은 살아있는 디테일 들이죠.

☞ 수 : 박 건축사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설계하시고, 감리를 하지 못하시면, 일을 안했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감리업무에 비중이 있네요. 그러니 최근에 협회 내에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한다는 움직임에 대해선 상당히 반대 하시겠어요.

● 박 : 어느 편이냐고 묻는다면 건축편이죠.

● 유 : 작품집에 나와 있는 모든 건물을 감리 하셨겠어요. 특히 주택이 많으시니까요.

● 박 : 그렇죠.

● 유 : 박 건축사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주를 하시게 되셨나요?

● 박 : 초창기에는 제 역량이라기 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턴키로 수주한 것을 제게 의뢰해서 이뤄졌고, 나중에 그 연으로 일들이 좀 생기게 되었죠.

● 유 : 저 MJ 건물은 어떻게 수주하신 것인가요?

● 박 :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턴키로 수주한 것을 제가 설계한 것입니다.

☞ 수 : 저 건물에서 타일이 매우 이채로운데요. 예폭시로 일일이 붙힌 것이 가요?

● 박 : 점판암을 쪼개서 유닛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예폭시로 접착한 것입니다. 양 측단면이 손가락처럼 벌어져 있어서 서로 끼우면서 접착한 경우입니다. 벽체에는 건식으로 부착되었습니다.

☞ 수 : 시공이 매우 잘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 박 : 현장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설치미술가가 연출과 시공을 담당했어요.

● 유 : 혹시 저 공법에서 하자 같은 것이 있진 않았나요?

● 박 : 아직까지는 없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거든요.

● 유 : 근데 이 건물이 매우 높거든요. 몇 층이죠?

● 박 : 6층으로 한 30여 미터 됩니다.

● 유 : 창문이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 박 : 전면이 가벽으로 서 있는 것이고요, 그 안쪽에 창문이 있어요. 안쪽에도 같은 점판암이 돌아가며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 벽체의 마감을 볼 수 있어요.

● 유 : 채광은 괜찮나요?

● 박 : 채광은 측면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 유 : 유사한 건물이 하나 더 있던데, 그것도 완성되지 않았나요?

● 박 : 네. 연예기획사 사옥으로 준공까진 했는데, 건축주의 사업이 수난을 겪으면서 간신히 입주만 되었어요. 그래서 완성이라기는 좀 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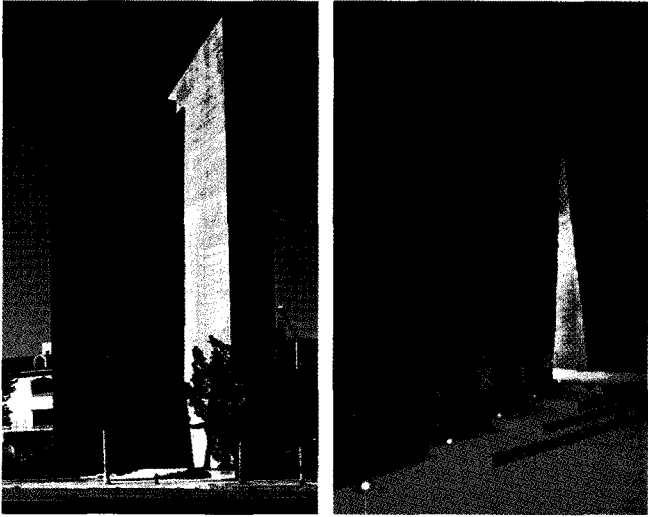
☞ 수 : 박 선생님 말씀 들어 보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설치예술가 등 예술계통의 인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들과 친분을 갖게 되셨나요?

● 박 :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었고, 일을 통해 알았죠. 물론 지금은 네트워크가 생긴 편이지만...

● 유 : 그런 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배경이 되신 것이네요...

● 박 : 그렇다고 할 수 있죠.

☞ 수 : 그렇다면, 건축주가 다른 건축주를 다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신 것이네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건물중에 '퍼즐'이라는 건물을 보면 단독주택이 아니고 사업하는 즉, 판매하는 건물로 보여 지는데요.



MJ 빌딩

- 박 : 주인이 사는 임대주택으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 수 : 박 건축사님이 그간 작업하신 건물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품질과 디자인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 유 : 혹시 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주셨나요?
- 박 : 그렇지 않지만 처음부터 주인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입니다.
- 유 : 이게 몇 가구인가요?
- 박 : 원룸과 투룸이 있고 주인세대 포함하면 15가구입니다.
- 수 : 박 건축사님은 설계 수주에 있어서 성공률이랄까 이런 것을 대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자면, 몇 번의 미팅을 하면 몇 번을 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 박 : 글썄요. 제가 직접 건축주와 만나는 경우에는 90% 이상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제 3자를 통하는 경우는 거의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 수 : 그건 왜 그렇게 될까요?
- 박 : 그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느낌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되면 100% 성공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의 교감이 없잖아요. 그러니 결과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 수 : 그렇다면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뭐 지어진 건물을 통해 서라든지, 박 건축사님에게 개인적 믿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 박 : 그럴수 있죠. 서로 마주고 의견을 나눈 경우와 제가 설계한 건물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 이미 신뢰가 전제된 것이죠.
- 수 :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의 건축주가 약간의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 박 : 서로의 생각을 스케치로 풀어줍니다. 저도 물론 건축주가 신뢰가 가야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경우 어렵지 않게 계약이 이뤄 졌습니다. 제가 좀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 유 :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시면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실까요?
- 박 : 한 건이 있었는데, 당연히 신뢰부족이죠. 사이트가 양양에 있었고,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 일을 봤는데 일의 방향이 자꾸 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 확인했더니,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별도의 작업지시를 수시로 한 거였어요. 시공자는 제 말보다는 건축주 말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화로 확인 했더니 "제 집인데, 제 마음대로 못합니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준 저도 불찰이겠지만 바로 정리했죠.
- 유 : 건축주가 건설에 경험이 있거나, 뭐 좀 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나 보죠?
- 박 : 그런 분 같진 않았는데, 자기만의 고집을 서로가 주장한 거죠.
- 유 : 혹시 남들이 생각하는 박 건축사님은 어떠실까요? 성격이 센 편이실까요? 그렇게 주장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 : 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고집이 세단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 오히려 좀 부드럽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요즘들어 생각을 해보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 수 : 지금까지 사무소를 주욱 해오시면서 가장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였나요?
- 박 : 지금입니다. 지금 아주 바닥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진 모르겠지만,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가 문제도 그렇고 아, 제가 허가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종로구 돈화문지구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지구단위지침에 도로사선에 의해 계단식이나 사선으로 꺾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었죠. 물론 저도 그것에 동의 합니다. 그래서 전 매스구성을 통해 결합된 느낌을 갖도록 제안했어요. 스킵플로어 구성으로 높이가 다른 2개의 매스를 결합하여 도로사선에 대응한 것이죠. 담당자분이 매우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동일한 계단식이라고 판정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재설계를 하고 있어요.
- 수 : 그건 단일매스를 만들고, 셋백(set back)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도로 폭을 보면 한 층 정도 밖에 셋백이 되지 않을 것 같은군요.
- 유 : 셋백이 되었을 때, 무슨 문제를 갖고 그런 것일까요?
- 수 : 가로 경관측면에서 그런 것이겠죠.
- 박 : 제가 보는 설계자침의 취지와 의도가 그들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상의 2배 지출도 힘들게 하네요. 이 건물의 용도는 원룸개념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수 : 그렇군요,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국내에 참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의 건축심의회위원회에서 독일의 B-PLAN(지구단위계획에 해당)에서 지정된 내용을 벗어나는 안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허용해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심의회위원회에 질문을 하니, 그 결과가 우문헌답이었습니다. "안이 좋고, 도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안을 사주는 그들의 유연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 박 : 저희도 그런 유연한 제도가 있으며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공무원하고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은 건물이라고 공인되거나,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건물들은 세금을 줄여준다거나,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개인 건축주들이 좋은 건축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냐 물었었죠. 그런데 요즘엔 그것도 회의가 들어요.

● 유 : 지금 그러니까, 관 문제로 매우 힘드신 거네요.

● 박 :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힘든 경우입니다.

☞ 수 : 그림 목은재로 좀 넘어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건물은 수주하시게 되었나요?

● 박 : 기업가이시고요. 그 분에게 어느 분이 설계자로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건축주를 만나보니, 지금 사무소 건물의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었죠.

● 유 : 양평에 위치했다고 써 있는데요.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큰 집에 거주하실 만큼 가족이 많으신가요?

● 박 : 주차장 포함해서 160평 정도 되고요. 현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제분들이 수시로 함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전제로 기획된 건물입니다. 건축주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일구신 70이 넘는 분인데, 아주 활력이 넘치시고, 지금도 회화를 배우고 계세요. 젊으셨을 땐 건축가가 꿈이 셧데요. 보기도문 열린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참 즐거운 작업이었죠.

● 유 : 대지는 얼마나 되나요?

● 박 : 임야를 포함한 작지 않은 부지를 갖고 계셨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400평 정도 받았습니디.

☞ 수 : 사진을 보니 대지가 고저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층 정도.

● 박 : 그렇습니다.

☞ 수 : 매스들이 방향이 조금씩 서로 엇나가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 박 : 2층 부분은 남한강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아래층은 대지의 마당 쪽으로 동남향이 됩니다.

☞ 수 : 이 사진은 못 보던 것인데요. 진입부인가요?

● 박 : 네, 이것은 제가 시공까지 주도한 것인데요. 일종의 진입부에 있는 휴식처입니다.

☞ 수 : 내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주택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외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 박 : 보시는 데로고요. 주택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체를 3파트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한 것이 좀 특별한 계획이었죠. 예전에 가봤던 독락당에서 얻은 느낌인데, 어떤 의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치된 설정을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열림을 극대화하려면, 그 전에 닫아두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자면 '반전'이거나, '생각 갈아타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되겠죠. 그리고 독락당의 미로같은 것을 반영하려고 했죠. 다행히 건축주도 재미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파트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암혀져서 더 이상의 숨겨진 것이 없다면 재미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은재에서는 주공간들이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외·내부가 서로 부딪치며 관계하고, 축이 틀어지면서 내가 걸어온 궤적을 잃어버리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앞으로 이 경험과 생각을 좀 더 발전 시키려고 합니다.

● 유 : 외부에서 이 건물이 노출 되나요?

● 박 : 도로에서 멀리 보이거나, 강 건너 저편에서는 아주 작게 보이겠죠.

● 유 : 설계비는 잘 받으셨나요?

● 박 : 주택 설계비로 충분한 경우도 잘 없지만,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늘 부족하죠.

● 유 : 공사비는 어떤가요?

● 박 : 조경 등을 포함해서 평당 7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유 : 그렇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 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는 항상 부족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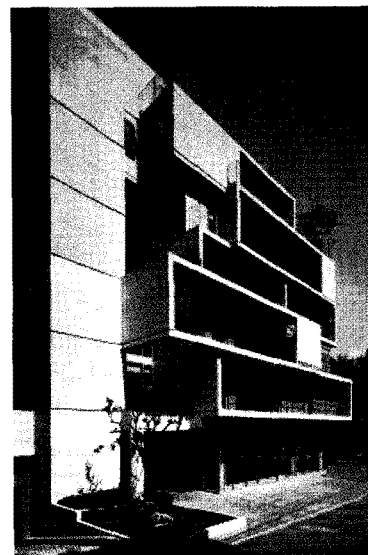
☞ 수 : 그렇죠. 국내에선 설계비가 평당가, 혹은 전체공사비의 일정 퍼센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죠.

● 유 : 박 건축사님은 원천적으로 콘크리트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 초우재도 콘크리트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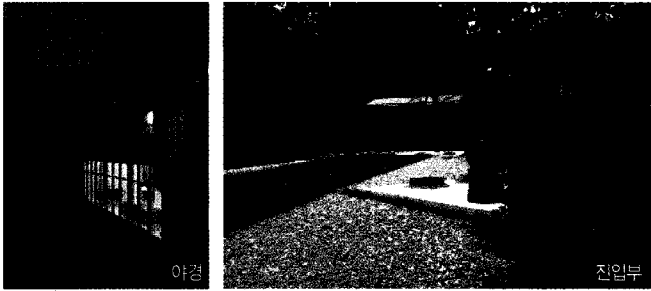
● 박 : 네, 콘크리트에 적삼목을 올렸죠. 기억속에 남아있는 판자집의 정감을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 수 : 박 건축사님께 콘크리트는 어떤 재료일까요?

● 박 : 제 생각을 잘 표현해 주는 재료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료가



퍼즐하우스



목은재

기도 하고요. 어려운 결합이나 디테일 없이 맘먹은 대로 표현이 가능해서 즐겨 씁니다.

● 수 : 혹시 주변에서 이 콘크리트에 대한 반론을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너무 차갑다 라던지, 아님 건강에 좋지 못한 재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데요.

● 박 :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재료가 콘크리트예요. 디테일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물론 재료에 대한 개인적 의미도 있죠. 순수함, 솔직함, 본질이나 조형성 등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편한 것입니다.

● 유 : 그런데 국내 기후 상 건축에서 콘크리트 단판으로 건축을 할 순 없잖아요?

● 박 : 그렇죠. 단열을 해야죠.

● 유 : 그래서 일본과는 좀 다른 기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 : 디테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벽면의 얼룩방지를 위한 물길을 만든 다든지, 창호와의 결합, 방수처리와 재료결기 등 기본 디테일은 필요합니다. 과거 노출콘크리트에서 생겼던 문제점들은 극복해야죠.

● 유 : 제가 개인적으로 화학하시는 분을 아는데요, 그 분 표현을 빌면, 콘크리트가 매우 안전하다고 하시더라 고요. '허로 활아도 된다'고 했어요, 시멘트가 좋은 것을 써야 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은 콘크리트를 감추기 위해 보드를 붙이고, 본드를 쓰고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어요, 그러니 소싯때 써도 되실 것 같습니다.

● 박 : 콘크리트가 유해하지 않다 란 말씀이시군요, 위안이 되네요.

● 유 : 그 독성이 있다 해도 매우 작다면 뜻일 겁니다.

● 수 : 그럴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를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좀 새삼스럽죠, 그리고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박 : 건축공간으로 사용자의 순수 감정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실현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감정생성 과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고착된 감정을 공간이란 과정을 통해 치유 한달까, 육체보다 생각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편안한 공간을 이야기 하는 것 이겠지만 목은재에서는 지나온 과정을 사용자의 생각에서 지우는 것을 확인 했어요, 건축으로 삶의 이야기뿐 아니라 연애편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해요, 아직 피상적이긴 하지만.

● 유 : 미술관이나 종교 건축같은 것을 하시면 더욱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박 : 저는 주택이 매우 즐길 수 있는 건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침묵의 건축이 아니라 수다쟁이 건축이랄까? 제 생각입니다.

● 수 : 지금까지 박 건축사님하고 이야길 해보니까, 참 개인적인 분이셔서 느낌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너무 객관화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질이 놓쳐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 건축사님은 뚜렷이 무얼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여 참 좋습니다.

● 박 : 말씀은 고마운데, 참 파곤해요.

● 수 : 너무 객관화 하려다 보면 확실히 얻는 것이 있겠지만, 잃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 박 : 건축계의 선배들을 보면 고집 있으셨던 분들이 거쳐 갔던 그길을 나도 가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배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하지만 전 지금의 제모습을 바꾸고 싶지는 않고, 그런거죠.

● 수 : 말씀 듣다보니 박 건축사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 설계사무소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박 : 글썄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제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 생각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오히려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제가 주체롭게 걱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건축인으로 뿌리 내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역량을 믿어야 겠지만, 유 교수님이 책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유 : 저야 애들이 건축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오늘 좋았다, 내일 싫었다 뭐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이 직업으로서 건축설계에 잘 정착하도록 준비되어야 겠죠,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계속 뚝심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박 :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고집을 자꾸 내려 놓잖아요, 결국 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건데 힘에 부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회의도 있어요.

● 유 : 어떤 분들은 건축 안하고 가구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 박 : 사실 그 분이 그 분 관점에서 편한 쪽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도 저의 편한 생각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각자가 스스로 인정해야 겠죠.

● 유 : 다른 삶이 뭐 있나요?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 : 경제적인 것은 좀 제도권에서 보장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감사했습니다.

● 유 : 오늘 뵈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물 부탁합니다. ■